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아타워1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2월 2일(월) 제 3258호

도 KB·신한 금융타운 조성 혁신 '제3 금융허브' 현실화

증권·자산운용·보험 계열사 집적 이전 KB250명·신한300명 인력 상주 계획 연기금 연계 밸류체인 형성

민간 금융의 양대 축인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한다.

이번 결정은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 제3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지난달 28일 증권·자산운용·손해보험 등 핵심 계열사를 한데 모은 'KB금융타운'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KB증권과 KB자산운용 사무소가 들어오고, AI 기반 비대면 전문 상담조직원 '스타링크'도 입점한다. KB손해보험 광역 스마트센터도 구축되며, 기존 인직원 150여 명에 100여 명이 추가돼 총 250여 명이 상주하게 된다.

신한금융그룹도 전북을 '자산운용·자본 시장 혁신 허브'로 선언했다.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사무소를 개설하고 고객상담센터도 신설한다. 운용부터 수탁, 리스크 관리까지 자본시장 밸류체인 전체를 구축해 현재 130여 명인 전문 인력을 3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에는 정부 소속 기관 8곳, 준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5곳, 금융기관 18곳 등 총 31개 기관이 자리 잡는다. 도는 그동안 서울이 종합금융을, 부산이 해양·과생금융을 담당하는 국가 금융 구도에서 전북이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을 맡아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삼각축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이번 양대 금융그룹의 결정은 청사진이 현실화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금융특화지역으로 선도하는 전북이 민간 대형 금융그룹까지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금융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는 평가다.

민간 대형 금융그룹의 연세적 이전은 도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550여 명의 금융 전문 인력 유입으로 주거·교통·식음료·생활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한다.

복수의 금융 계열사가 동시에 집적돼 단일 기관 이전보다 경제적 승수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공간 조성 과 시설 운영에 따른 직접 고용은 물론, 보안·전산·총무·환경 등 용역·관리 분야의 간접 일자리도 함께 창출돼 지역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민간 금융그룹이 연계해 '연기금-금융사-전문서비스'로 이어지는 실질적 밸류체인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전북은 단순 지원 기능을 넘어 고부가가치 자산운용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립여성중고교 제26회 졸업식 '만학의 꿈 결실'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김형태)는 지난달 30일 본교 강당에서 졸업생과 가족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안호영, KAIST와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논의

이광형 KAIST 총장 면담...협력 방안 구체화 실무 협의 남원 공공의대 추진 '임상-연구' 거점 강조 KAIST 의과학·AI 역량 결합 모델 제시...국가정책 모델화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이 KAIST 이광형 총장을 만나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구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 캠퍼스 유치' 선언과 관련,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KAIST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명자 KAIST 이사장, 김경수 부총장 등 KAIST 주요 인사가 함께 참석해 AI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의료 혁신 모델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안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 등 글로벌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의료와 AI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전북을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안호영 의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남원이 임상과의 의사와 학자, AI 의료 연구가 결합되는 최적의 협력 거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에 이광형 총장은 "KAIST가 의과대학원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사과학자(MD-PhD)를 배출한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AI 전문성을 갖춘 의사·공학 융합 인재 양성과 의료AI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남원은 공공의대를 통한

임상의 양성과 KAIST의 의과학·AI 연구가 결합되는 국내 유일의 전략 거점"이라며 "연구-임상-산업이 연결되는 공공의료 AI 혁신 모델을 전북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고령화와 농어촌 중심 의료 구조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AI 의료 혁신을 실증하고 국가 정책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AI기반의료 국가전략을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미래 의료 산업 창출의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안호영 의원과 KAIST 간 구체적인 협력 구조가 논의됐으며, 안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실무 협의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면서, 전북을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려는 구상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립여성중고교 제26회 졸업...만학의 꿈 53명 결실

16명 대학 합격 진학 성과 '눈길'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김형태)는 지난달 30일 본교 강당에서 졸업생과 가족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졸업식'을 개최하고 최고령 졸업생인 79세 이순남·박금순 학생을 비롯, 만학의 꿈을 이룬 졸업생 53명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중학교 과정 24명, 고등학교 과정 29명이 지난 3년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이뤄낸 값진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졸업생 전원은 도지사 표창, 도의회 의장상, 교육감상, 학교장상, 개근상 등을 수상하며 성실한 학업 태도를 인정받았

다. 가족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졸업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또 총동문회 새임장학회는 고교 진학 22명과 대학 진학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대학 진학 10명에게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졸업생들은 눈에 띄는 진학 성과를 거뒀다.

중학교 졸업생 24명 중 22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생 29명 중 16명이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등 4개 대학 9개 학과에 합격하며 늦깎이 학생들의 자력을 보여줬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배움에는 결코 늦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여러분이 전북의 희망"이라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날을 전북도가 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김형태 교장은 "학생 한 분 한 분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배움의 길을 끝까지 걸어온 주인공들"이라며 "앞으로도 성인 여성들이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가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립여성중고교는 3일까지 신입생 60명(중 30명, 고 30명)을 모집한다. 도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장정철 기자



완주군의회
Wanju County Council

전북도, 피지컬AI '특별법 특례'로 규제 개선·실증 속도

전북대서 피지컬AI 전문가 간담회 테스트베드 규제·안전기준 개선요구 데이터 활용 제한·책임 기준 불명확 규제자유지역·특례 패키지 추진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전북대에서 피지컬 AI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전북특별법을 통한 특례 도입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특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대 김순태 교수, 조형기 교수, 전북연구원 안수영 연구원, 캠프 송기정 본부장 등 피지컬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피지컬 AI 실증·테스트베드 운영 시 과도한 규제 ▲협동로봇·자율주행로봇(AMR) 등 신기술에 대한 산업안전 기준의 경직성 ▲AI 학습을 위한 산업 데이터·영상 활용 제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불명확성 등 현장 중심의 규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실증 단계임에도 정식 인증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가 기술 상용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함께, 일정 구역에 한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실증구역 특례'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공정·설비·센서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AI 고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과,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전북 차원의 사고조사 체계 및 책임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논의



전북도는 1월 30일 전북대에서 피지컬 AI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제도적 애로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전북특별법을 통한 특례 도입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사진=전북도>

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규제자유 실증지역 지정 ▲실증 특례 패키지 도입 ▲산업용 데이터

활용 특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 협의 및 후속 입법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KB·신한 혁신도시 금융허브 조성 환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 "동력기대" 추가 금융기업 이전 본격화 전망 정주여건 개선·제도 지원 전폭 추진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각각 KB금융타운과 신한금융 종합허브를 전북 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한 깊은 해안과 과감한 결단이 담긴 역사적 선택을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강력한 동력이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획기적인 결단이다"며 "동시에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자산운용 생태계 부족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 전북이 금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견고해지고 있는 전북의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른 국내의 자산운용사와 금융기업들의 전주 이전 역시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제한 뒤 "전북은 이제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춘 지역이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러한 흐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 우선 KB금융타운과 신한금융 종합허브 조성

과 동시에 전북으로 이전하는 자산운용사가 안정적인 뿌리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임직원과 가족들의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환영 입장을 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전북특자도 대도약법' 발의...권한이양·특례 강화

"5극·3특 한층 위상 정립 취지" 수소·신재생·이차전지 지원 근거 의료·관광·교통 등 특례 대폭 확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의 한층으로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특례들을 마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를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흐름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 체제의 당당한 한 축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라면서 이법 개정안안



윤준병 의원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4년 1월 출범하면서 규제혁신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가 갖는 권한과 특례들은 초기 단계의 선안적 조항에 불과하거나 기본적인 특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하는 △농생명산업, △의생명산업, △첨정에너지산업, △금융산업 등 글로벌 생명경제를 선도하기에는 구

체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통합특별시 추진으로 인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외면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윤 의원은 지방 주도성장에 대응해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확실한 위상을 정립하고,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중앙의 권한을 전북에 이양하여 조직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미래 에너지 및 첨단 산업 분야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청 시 우선 지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집중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전북이 미래 전략산업의 국가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특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도 신설하면서 의료·문화·관광·체육·교통 등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특례와 권한 이양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전북의 주력인 농생명산업과 관련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지원 특례, △종자·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

이원택 "전북에 180홀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

국내 최대 규모 관광복지 동력 가족형 테마 등 복합단지 구상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급성장하고 있는 파크골프를 전북의 새로운 관광·복지·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크골프는 고령층 중심의 스포츠를 넘어, 아이·부모·조부모가 함께 즐기는 전 세대 국민스포츠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북의 넓은 공간과 자연 경쟁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크골프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도적 규모의 180홀 파크골프 복합 단지를 조성해 스포츠와 복지, 관광이 결합된 생활인구 유입형 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의 파크골프 환경은 빠른 대중화 속도에 비해 △가족 친화형 복합시설 부족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인프라 미비 △확장 가능성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



이원택 의원

르면 전국 파크골프장은 총 424개에 달하지만, 전북은 22개에 불과하며 이 중 정규홀인 36홀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규모 구장이 전체의 91%*(20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 파크골프의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있다는 평가다.

이에 이 의원은 파크골프를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닌 복합 레저·문화·관광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야간 이용이 가능한 파크골프 코스 △가족 단위 체험형 테마 공간 △휴식·문화·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콘텐츠를 도입해 파크골프를 전북의 대표 생활체육 산업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파크골프장은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생활체육 복지이자, 지역 상권을 살리는 강력한 관광 상품"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전국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연간 수만 명의 외지 방문객을 전북으로 끌어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평생교육이용권 전국 최다 사용률 기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운영 결과, 총사업비 11억1천만 원 중 약 10억9천만 원이 사용돼 98.2%의 이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북 도민의 높은 평생학습 수요와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입증한 성과이다.

사업은 일반·디지털·노인 분야로 세분화해 총 3차(우수이용자 포함)에 걸쳐 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8천여

명의 신청자 중 3,969명을 최종 선정해 1인당 35만 원 상당의 이용권 포인트를 지원했다.

이용자들은 외국어, 자격증, 취미·교양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했으며, 도와 진흥원은 사용 안내와 상담,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이용률을 높였다.

도와 진흥원은 향후 △신규 사용기관 발굴 △지역특화 프로그램 연계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지 이용 특례,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특례,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등을 마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생명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관련 규제 완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자치 조직 및 재정권 강화로 '전북형 자치'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조항들도 대거 포함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주변 광역단체들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 생존하는 길은 '5극·3특'체제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지키며 강력한 '특별자치모델'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진 전북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난방기 화재 대비

1

난방기 안전인증(KC)마크 확인하기

2

난방기구의 열선등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3

난방기구 주변에 인화물질 두지 않기

4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뽑았는지 확인하기

중기부, 스타트업·벤처 유니콘 도약

정부지원금 등 제공 20일까지 '유니콘브릿지'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는 2026년도 유니콘브릿지 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다.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 중에서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 주도 기술창업지원사업) R&D' 혹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완료한 창업기업 혹은 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최종 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한 뒤 4월 중 지원대상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www.ki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딥테크 분야 영위 기업에 대해 평가가점을 적용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된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딥테크분야 혁신기업을 발굴해 유니콘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또 TIPS 완료기업 및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완료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에도 가점을 적용



중기부는 2026년도 유니콘브릿지 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해 이어달리기식 정부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성과평가 시 단계별 마일스톤(투자 등 시장검증)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판정'이 된다.

실패판정 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추가지원금 10억원 중 5억원은 '성공환원금'을 납부하게 된다.

한성숙 장관은 "유니콘은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어, 우수한 잠재 유니콘들을 발굴해 해외 투자유치 연계 등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해 혁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LX 고강도 '반부패·청렴 혁신' 본격화

어명소 사장·관리자들 반부패·청렴 선언문 선포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가 지난달 29일 '2026년 반부패·청렴 선포식'을 진행하고, 고강도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LX공사 어명소 사장과 관리자 250여명은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청렴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 전파와 반부패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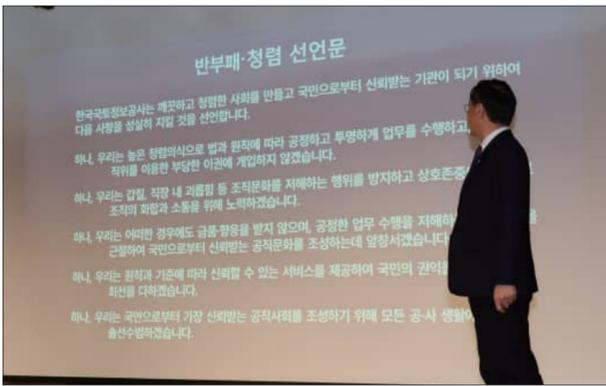
청렴 선언문은 △공정한 업무수행(이해충돌방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신고자 보호 등) △급급·향응 수수금지(정탁금지) △원칙과 기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불공정 요인 해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성(행동강령 내실화) 등 5대 항목을 바탕으로 실효적 반부패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LX공사는 청렴문화 확산과 내재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및 실천방안 등 청렴 사례를 담은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밖에 청렴 실행력 강화와 동참을 위해 전북·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화순·보령·목포무안·김제·영광지사를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사자표창을 수여했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기관장을 비롯해 모든 관리자의 솔선수범으로 청렴 실천을 내재화하고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LX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기억될 것"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달 29일 '2026년 반부패·청렴 선포식'을 진행하고, 고강도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성료

구직자 850여명 상담 '취업성공 이야기' 발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이하 공단)이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해 연금복지 전문기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재정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공단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구직자 850여 명에게 생생한 채용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상담사로 직접 나서, 취업 준비과정부터 실제 업무경험까지 구직자 눈높이에 맞춘 진솔한 조언을 건네 구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장애인 및 청년인턴 채용 전용 상담부스도 별도 운영해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공단의 우수 인재 채용 성과도 돋보였

다.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한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전'에서 공단 직원 4명 '최우수상 유현준 대리', '우수상 차영현 주임', '장려상 김정연 주임, 이현준 주임'이 입상했다.

이중 최우수상을 받은 유현준 대리와 우수상을 수상한 차영현 주임은 '공공기관 취업성공 이야기' 발표자로 나서 자신만의 취업 전략과 면접 비결을 공개했다.

공단은 올해 일반직 210여명, 공무원 40여명, 기금운용직 50여명 등 총 30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며, 청년인턴 250여 명도 별도 선발할 계획

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어려운 취업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정진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박람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직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통해 열정 있는 인재들이 글로벌 리딩 연금기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진행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각 작목별 30명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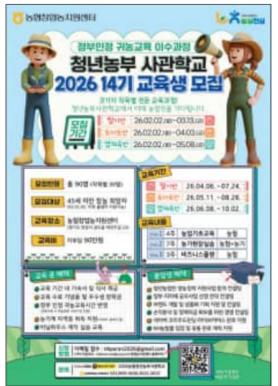
농협중앙회(회장 강오동)는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인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오늘부터 2026년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농부사관학교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13기, 721명의 예비 청년농업인을 배출하고, 다양한 사후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수료자의 창업준비 및 영농정착 단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올해는 각 작목별(딸기, 토마토, 엽채류) 30명씩 모집해 총 9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만 45세(82.01.01 이후 출생)미만의 청년으로 농업분야에 열정을 가진 사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과정은 3개의 주요작목(딸기, 토마토, 엽채류)로 각각 운영되며 △입문(농업기초·농협의이해) △중급(작목별 이론, 선도농가 실습) △고급(사업계획서·창업준비)의 총 3개 모듈로 구성돼 4개월간의 교육기간동안 440여 시간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농업을 처음 접하는 청년들도 효율적으로 영농정착을 할 수 있게 필수이론 및 전문농업경영인(마이스터)연계농가의 현장실습교육을 함께 구성해 놓은 것이 올해 교육의



특징이다.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에게는 △기숙사 및 식사제공 △정부인정 귀농교육시간 인정 △우수교육생 장학금 지급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판로지원 △교육 수료시 기념품 증정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모집일정은 딸기반 교육생은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토마토반 교육생은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엽채류반 교육생은 오늘부터 5월 8일까지로 농협청년농부지원센터 홈페이지(nhparan.nonghyup.com)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nhparan2026@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청년농부지원센터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농신보 남원센터 '신규보증 2,260억원 지원'

농림수산업 분야의 활성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남원권역 보증센터(이하 농신보 남원센터, 센터장 이성진)는 농림수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약 226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 남원센터는 지난 25년 여간 지역 내 농림수산업인의 영농활동에 중추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며, 농어촌 경제 기반조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보증지원과 청·장년 후계농업인 등 보증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지난해에는 보증잔액이 5,400억원에 달했다.

농신보 남원센터 이성진 센터장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예측불허의 내내의 경제 상황으로 농어촌 경제가 지속적으로 힘든 부침을 겪었지만, 신규농업인 발굴을 통한 농업인 유인과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한 농신보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농신보 남원센터는 남원, 순창, 임실, 장수 관내 농·축·산림조합 총 78개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국군의무사령부, 의료시설 안전성 ↑

의료시설 전기설비안전확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국군의무사령부(이상호 사령관)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협약은 전력 공급 중단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시설 특수성을 고려해 전기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안전보건교육 협력 △전기시설 관

련 자문 등의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병원의 의료시설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기술 자문을 제공해 정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군의무사령부는 공사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남하영 사장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의무사령부와의 협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라며, "공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시설 전기안전점검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안전보건교육 협력 △전기시설 관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달러예금 원화 환전 이벤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2026 달러예금 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환율 상승 기세 감소와 외화 예금 풀림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 안정화 정책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환전 혜택을 제공하고 자 마련됐다.

이벤트 대상은 전북은행의 외화보통예금(USD) 상품을 보유한 개인고객으로 고객이 전북은행 모바일 앱 '속뱅크'를 통해 외화계좌에 보유중인 달러(USD)를 원화계좌로 출금(환전)할 경우, 최대 80%의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

시 사이에 거래 가능하며, 건당 미화 10만 달러 상당액 이하의 거래 시 혜택이 제공된다.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달러 보유 비중이 높아진 개인 고객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높은 환율 우대 혜택을 받으며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춘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속뱅크' 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2025년 12월 전북 산업활동동향

2025년 12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운송장비', '전기·가스업', '1차 금속' 등은 증가했지만 '자동차', '음료', '기타 제품' 등이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2.0%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업종별 증감내역에서는 기타 운송장비(310.5%), 전기·가스업(15.7%), 1차 금속(16.1%)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34.3%), 음료(-20.8%), 기타 제품(-55.6%)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지역 '25.12월 광공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5.5%, 전월대비 0.2% 각각 증가하고 기타 '운송장비', '기계장비', '전기·가스업' 등은 증가, '자동차', '기타 제품', '음료' 등이 감소했다. /김영태 기자

12월 전북지역 광공업 재고 전년동월대비 0.0% 보합. 전월대비 5.2% 감소/1차 금속 비금속광물·전기장비 증가/자동차·식료품·기계장비 감소//

12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 87.7 전년동월대비 9.2% 감소/신발·가방·의복 증가/가전제품·기타 상품·음식료품 감소//

자세한 내용은 호남지방데이터청 누리집(https://mods.go.kr/arhn) 또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학교가 주도하는 AI 교육, 전북에서 확산

AI 중점학교 81개교 선정 AI 교육 현장안착 교육과정 혁신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2026년 AI 중점학교 81개교를 선정,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I 중점학교는 AI 교육을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연계해 수업·평가·학교 운영의 변화를 이끄는 학교로, 이를 통해 AI 교육의 현장 안착과 학교 간 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AI 중점학교는 학교의 운영 여건과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도형 3개교·중심형 54개교·문화 확산형 24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운영 역량과 교육과정 연계성, 실행 가능성,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I 활용 수업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유형별로 차등화된 운영비와 AI 활용 수업 설계, 교육과정 재구성,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해 초등학교는 실과·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AI 수업 모델을, 중·고등학교는 정보 과목 및 교과장 개설 과목과 연계한 심화 AI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성과는 수업 사례 공유, 자료 공개, 권역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AI정보교육 중점학교는 단순한 시범 운영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2026년 AI 중점학교 81개교를 선정,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학교가 주도적으로 AI를 활용해 교육을 내 모든 학교로 AI 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운영 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관리해

/정혜민 기자

“학교·가정·지역이 학생 성장 돕는다”

학부모 지원 사업계획 확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센터장 장경)가 학부모의 교육 주체성을 강화해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 학생 성장을 돕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학부모지원센터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학부모 지원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계획은 학부모를 단순한 교육 참여자가 아닌 학생 성장의 동반 주체로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학부모지원센터는 실효성 있는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학부모 교육 △현장 중심·수요자 맞춤형 지원 △학부모 정서·심리 지원 및 갈등 예방 △지역 연계형 학부모 교육 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 역할', '자녀 교육', '학교·지역 협력' 등 3대 핵심 역량을 중심에 두고 교육·컨설팅·치유·공동체 공간 지원을 아우르는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사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학부모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초·중학교 입학 앞둔 신입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2월 중 '2026년 새내기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학부모는 전북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권역별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도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 청년 위한 물품 전달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앞장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유기용)은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주거생활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유기용 관장,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임정미 회장 외 도내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따뜻한 동행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직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전달식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를 앞두고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보호아동들과 자립을 시작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달식으로 '필립스 로봇청소기' 20대를 각 기관에 10대씩 전달했다.

유기용 관내비서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 "자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의거해 2022



전 3월 개소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약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멘토링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국의 및 타 시·도에서 테니스와 축구, 육상, 유도, 핸드볼,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전북에서 동계훈련을 펼치고 있다.

유도와 육상 등의 종목의 경우 국가대표 상비군(후보선수)과 청소년 대표, 꿈나무 선수들도 도내에서 머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 일본 나고야 중부대학교 핸드볼 선수단도 현재 익산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1월 기준 총 12개 종목 168팀 약 2700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도내에서 동계강화훈련을 펼치고 있다.

종목별 훈련지를 보면 스텐니스(전주)

△축구(군산) △육상·유도·핸드볼(익산) △배드민턴·검도·씨름(정읍) △배드민턴(김제) △수영(완주) △태권도(진안) △배드민턴(무주) △사격·양궁(임실) △씨름(고창) △배드민턴·유도(부안) 등이

다. 이들은 집중강화훈련을 비롯해 다른 팀들과의 합동연습과 친선경기 등을 펼치며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달에도 태권도, 레슬링, 펜싱 등 여러 종목에서 전지훈련을 하기위해 전북을 찾은 예정이다.

이처럼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전북이 전지훈련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2026년 전북형 건강증진학교’ 5개교 운영

학교 특색에 맞춘 건강증진 모델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평생건강 기틀 마련을 위해 '2026년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스스로 학생들의 건강지표를 진단하고, 교육공

동체가 함께 참여해 주요 건강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주도형 건강증진 사업이다.

전북교육청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5개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당 5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는 아동·청소년 주요 건강지표 분야인 △비만 예방

및 체형 균형 △일상생활 속 건강실천(시력·구강건강 등) △기타 학교 특색 건강증진 사업 중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오는 2월 4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선정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에서는 학생건강지표 진단과 학교 특색에 맞춘 중점 운영 방안 및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안내해 사업의 안정

적인 추진을 돕고,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특색을 살린 건강증진 모델"이라며 "학교 스스로 학생의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학교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겨울철 도시가스 효율적 사용 방법

실내적정 온도
20°C

샤워시간
5분 줄이기

복벽이, 문풍지
커튼으로 틈새
열손실 ↓

노후 배관
오염물질 제거로
난방효율 ↑

안쓰는 방
난방온수 분배기
밸브잠그기

노후보일러를
고효율보일러로
교체

익산시 '시립 치매요양원' 본격 가동 신뢰받는 돌봄 체계 구축

익산시가 합열읍에 '시립 치매요양원'을 개원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평안한 일상을 위한 본격적인 전문 돌봄 서비스에 나섰다.

익산시는 시립 치매요양원을 통해 시의 엄격한 공공 관리와 민간 전문 법인의 숙련된 노하우를 결합한 차별화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익산시 시립 치매요양원은 치매전담실 23명, 일반실 7명 등 총 30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이번 시설의 가장 큰 혁신은 '사람 중심'의 인력 운용이다. 시는 노인 인지 기능 재활을 위해 법정 기준 외에 전문 작업 치료사를 별도로 채용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인력을 법정 기준보다 증원 배치해 24시간 밀착 케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수용을 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재활 인프라 역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시설 내 물리치료실은 넓고 쾌적한 공간에 최신 전문 기구들을 구비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노인이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신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운영 과정의 공공성을 철저히 확보해 보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모델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스마트 기기 활용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보건소가 오늘부터 스마트 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4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스마트 앱(오늘건강)과 건강 측정기기를 연동해 어르신의 건강정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성질환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에 한하며, 앱 연동 등 스마트폰 사양과 기종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지 면접...총 420명 도입 예정

익산시가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6일 베트남 다락성을 방문해 3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다락성과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익산시와 베트남 다락성 간 체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에 따라 진행된 공식 절차다.

시는 올해 총 4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배 확대된 규모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 농가의 인력 수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면접은 실제 농업 현장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농업 종사 경험 △농작업 적응 능력 △근로 의지와 성실성 △과거 근무 이력 △무단이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비자 발급과 출국 전 교육을 거친 후 농번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국해 익산 지역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베트남 다락성 현지 직접 선발은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근로자를 선별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계절 근로자 확대 도입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장애인사이클 실업팀 출범

전북 최초·전국 두번째 상반기 창단...‘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

익산시가 지역 유관기관들과 손잡고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장애인사이클 실업팀 창단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원광대학교병원, 익산시장에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함께 '장애인실업팀 육성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최대 성과는 상반기 중 창단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사이클 실업팀'이다. 사이클 종목 실업팀은 전국

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로, 전북자치도에서는 익산시가 처음이다.

기초지자체 단위로는 강원도 홍천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창단을 추진하게 돼 장애인 체육계의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팀 창단을 넘어, 장애인 선수가 한 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돼 경제적 안정을 누리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고용 모델'을 지향한다.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각자의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두터운 지원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익산시와 익산시장에인체육회는 실업팀 창단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팀 운영 전반

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장애인 선수들을 직접 채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선다.

선수들은 병원 소속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으며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 이번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달라지는 제도·시책' 공개

6대 분야 35건 시정 누리집 통해 소개

군산시가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제도는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확대되는 시책으로, 6대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농·축·수산·식품 △문화·관광 △복지·여성·보건 △일반행정·법무 △환경·녹지 등으로, 전국 공통 제도와 함께 군산시가 자

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일상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3차녀 이상 가정을 위한 '차량 무료 렌탈' 지원도 새롭게 추진되는데, 이 사업은 고항사랑기부제 지정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7~12인승 차량을 가구당 최대 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아이 꿈담합 지원사업'을 통해 군산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1학년 전원에겐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예체능 교육비를 1년간 지원한다.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운영돼 다양한 체험 활동을 돕는다.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우리마을 인턴십'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2년째 이어진다.

지역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 경험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개 기업과 9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6년은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전국 공통 제도는 물론 군산만의 특화 정책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재해 없는 안전 도시' 조성

문언소하천 등 총 8개 하천 정비 사업 박차

정읍시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총 216억원(국비 5억, 도비 50억, 시비 151억)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 정비사업에 나섰다.

시는 올해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갑곡면 일원의 갑곡천(갑곡·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7.51km 구간에 77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소성면 문언소

하천을 포함한 8개소, 총 8.98km 구간의 소하천 정비공사에도 83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소성면 문언소하천(1.47km) △용동면 내동소하천(0.78km) △갑곡면 방고소하천(2.33km) △소성면 보화소하천(0.93km) △덕천면 상학소하천(0.57km) △신대인읍 산정소하천(0.30km) △이평면 산배소하천(0.60km) △갑곡면 오단소하천(2km) 등 총 8개다.

시는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기존 하천의 기능 유지에도 힘을 쏟는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해 약 56억원(국비 5억, 도비 6억, 시비 45억)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준설 작업과 자생 수목 제거, 제초 작업 등을 병행해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230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21개소(13.1km)와 소하천 4개소(2.32km)의 정비를 차질 없이 완료하며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인 바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제11기 소셜미디어기자단 '출격'

30명 선발...MZ세대 겨냥 트렌디한 시정 홍보 강화

전국 최고 수준의 SNS 소통 역량을 자랑하는 익산시가 최신 미디어 트렌드인 '숏폼(짧은 영상)'을 중심으로 시정 홍보의 판을 새로 짰다.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1기 소셜미디어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익산의 매력을 알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11기 기자단은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뜨거운 열기 속에 콘텐츠 제작 역량이 검증된 30명이 최종 선발됐다.

특히 올해는 텍스트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숏폼 영상 기자' 분야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자단은 △일반(블로그)기자 10명 △SNS기자 5명 △숏폼영상기자 7명 △일반영상기자 8명으로 세분화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연령대와 지역, 관



심사를 바탕으로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시정 소식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과 사진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앞서 익산시는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부문 모두 2년 연속 최우수상을 휩쓸며 독보적인 홍보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이번 기자단 운영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온라인 확산력이 강력한 숏폼 콘텐츠를 시정 전반에 적용해 디지털 홍보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틸나·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모집

어르신 구강 기능 회복 도와

군산시 보건소가 노인 틸나·임플란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늘부터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며,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이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노인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 급여 적용 후 본

인부담금 지원(평생 1회 지원하며 상악과 하악은 별도 지원이 가능) △임플란트: 1인 평생 2대 지원(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틀니와 중복지원은 불가) △지대치(보철물 붙잡아주는 치아) 보철: 약당 최대 2개(2약당 최대 4개)까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대상자가 아닌 치료기관으로 시술비용을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모집 기간 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소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출생신고 기념품 지원액 인상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정읍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생아 신고 기념품 지원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해 지급한다.

시는 인구 및 출생 아동 감소에 따른 인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아기 이불세트를 정읍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변경한 데 이어, 최근 지원 금액을 2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지원되는 상품권은 지류형(종이 형태)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모바일 상

품권으로만 지급된다. 신청은 배우자나 부모 등 친족이 대리할 수 있으나 실제 수령자는 반드시 산모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아기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경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자녀 출산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출산 장려 분위기와 가족 친화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신천지 자원봉사단 군산지부, 환경정화 펼쳐

신천지 자원봉사단 군산지부(지부장 이한빛·이하 군산지부)는 지난달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 대포 관광단지 썸뿔화거리와 구시청 광장 일대 환경정화에 나섰다.

썸뿔화거리는 '군산썸뿔'을 음식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2019년 조성된 후 식당 앞에 줄 서는 광경이 매일 펼쳐질 정도로 1년 내내 많은 전국 관광객이 다녀간다.

이날 군산지부 30여 명은 썸뿔화거리 주차장을 찾아 미관을 해치는 일회용품, 음료수병 등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썸뿔화거리로 나가 식당가 화단, 빗물받이, 보도블록 틈 등을 살

피며 식당이 물려 유독 많은 담배꽂오와 작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치웠다.

또, 봉사자들은 거리를 따라 내려가며 이식당 앞 구 시청 광장까지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등 이날 총 6200 쓰레기를 주웠다.

봉사자들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속에서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고 지나가는 시민과 관광객은 "추위에 고생이 많다", "생각보다 버려진 쓰레기가 무척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한빛 지부장은 "앞으로도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 개최

정읍시가 지난달 30일 시청 구절초 회의실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심의 회의를 열고 '2026년 정읍시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4개 분야 관계자와 학계·정신 전문가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협의체는 통합돌봄사업 관련 실행계획과 시책을 심의하고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체로 2회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서를 중심으로 △2026년 통합

돌봄사업 추진사항 △의료·요양 등 분야별 서비스 연계 방안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통합돌봄사업에는 총 6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학수 시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실행계획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정읍형 통합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김제시, 기업 근무환경 지원 확대

규모제한 완화로 참여 기회 ↑...복지편익 개선사업 등 추진

김제시는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에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보다 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운영한다. 2026년 사업은 기존 근로자 수 200인 미만 기준을 폐지해 관내 제조기업 전반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의 다양한 환경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근무환경 개선사업 △복지편익 개선사업 등 2개 분야로 추진된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약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등 작업장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복지편익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장, 체력단련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2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 17건, 복지편익 개선 12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지정 산산업단지협의회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제조업 전반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접수

9~13일까지 신청

김제시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본사와 공장을 관내에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융자 한도액은 5억원이며, 융자기간은 업체당 2년으로 1

회에 한해 1년 더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일반기업 4%, 여성·청년기업, 김제시 표창 수여 기업은 5%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 은행은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 전북은행 김제지점, 국민은행 김제지점, IBK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 하나은행 전주금융센터, 우리은행 김제지점, 신한은행 익산금융센터 등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변하는 경기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역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지원 정책과 신규 사업을 발굴해 지역 내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무지개노인재가복지센터·설빙 고창읍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고창군 고창읍 주민행복센터(읍장 박병섭)는 지난달 29일 무지개노인재가복지센터(대표 김현정, 이사 서영수)와 설빙(대표 김순남)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을 각 100만원씩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무지개노인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설빙 또한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현정 무지개노인재가복지센터장은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김순남 설빙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환원하고자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섭 고창읍장은 "나눔에 동참해 주신 기관과 기업이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ESG 경영인증시스템 인증 획득

ISO 3관왕 달성 후 ESG 경영인증시스템까지

부안군은 지난달 30일 지방정부 최초로 ESG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행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ESG 경영 인증 획득으로 국제표준 인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ESG 행정의 선도 도시로 우뚝 섰다.

부배방지(37001)에 이어 지난해 11월 환경(14001), 안전보건(45001) 경영시스템까지 인증을 취득해 'ISO 3관왕(그린 드슬렘)'을 달성했다. 부안군은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글로벌 수준의 ESG 관리 체계를 완성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이번에 취득한 ESG 경영인증시스템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 부안군은 단순히 시스템 구축에 머물지 않고, 실제 행정 서비스와 지역 경영 전반에 ESG 가치를 성공적으로



내재화했음을 국제적으로 증명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부문 ESG 경영 기초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움직인 성과이며, ESG 사업과 관련하여 부안군은 △생활환경 10만명(한평생 부안군을 보전 프로젝트) △관광 활성화(바다단풍 불루키본 조성) △청년 인재 유입(부스들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젝트) △살고 싶은 부안(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드문 부안(전국 최초 만강 등록금 실현) △기분소독 지급(풍력+태양광 기반 좋은 부안 시대) △기업 유치(수소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 RE100 산단)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부안형 ESG+N 전략을 수립해 추진

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임진영 중소벤처기업인증위원장 및 인증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증의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ESG 경영 고도화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ESG 경영 시스템 인증은 부안군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책임 행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ESG 가치를 행정 전반에 확산시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지, 탐방열차 첫 운행

주민·관광객 편의성 ↑ '모로모로 열차' 호응

고창군이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탐방열차인 신규 '모로모로 열차'를 선보인다.

지난달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일원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한 체험형 시승식을 열었다. 고창의 대표 관광지인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콘텐츠

로서 새로운 '모로모로 열차'의 출발을 알렸다.

신규 '모로모로 열차'는 리뉴얼된 모로모로 캐릭터와 새로운 캐릭터인 '고창이와 친구들'로 디자인됐고, 관람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냉·난방기와 안전발판 등이 추가됐다. 또한 열차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적소리와 연무 등도 연출된다.

한편, 지난 2000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유적지는 탁자식·바둑판식·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공존하고 있어 선사시대 고인

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고, 세계 거석문화 이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대표 관광자원인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지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 신규 '모로모로 열차'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관광객과 지역주민, 아이들에게 세계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전승과 유산 투어리즘으로서 관광 모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 본격화

소비농가 만족도 97% 정책 효과 입증

부안군은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서비스가 4년 차에 접어들어 제도 안정화에 들어갔으며 2026년 배송사업자를 선정하고 올 사업 시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양곡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소비농가까지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농가가 직접 운송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물리적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특히 고령, 영세 축산농가 등에 정책

제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소비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97%가 운송 편의성 면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비를 증액하고 현금으로 부산물 대금을 납부·수령하던 것을 계좌 입금이 가능하게 해 배송 효율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높였다.

군은 앞으로도 배송 일정 관리 고도화, 농가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초기에는 시범사업 성격이 강했지만 3년간 운영 경험과 농가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했다"며 "올해는 예산을 확대하고 농가 및 업체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2023년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서비스 사업을 통해 농가의 물류 부담을 줄이고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축산물 위생 점검 실시

명절 대비 먹거리 불안 해소

부안군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성수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육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군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2026년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명예축산물감사원 2명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축산물 취급 업소 중 설 명절과 관련성이 높은 선물세트 및 제사 음식 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관과 축산물의 적정 처리 여부 △식육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냉동식품의 불법 해동·판매 여부 △포장육 및 선물세트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양정보 위생관리기준 및 자체 위생관리기준서 운영 여부 등이다. 권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축산물 영업자들 또한 관련 법규 준수와 자율적인 위생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지사협,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9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제11기 위원 위촉과 함께 2026년 주요 사회보장 정책 및 사업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기 고창군 지역사회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2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지역 복지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총 6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됐다.

주요 심의 내용은 △제6기(2027~2030) 고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계획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및 2026년 사업계획 △2025년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 등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6년 고창군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탄소중립과 신에너지 육성' 전략 마련

김제시가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내외적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탄소중립'과 '신에너지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김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관련 공무원,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그간 시는 지난해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착수보고회와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국기업환경연구원과 함께 일정대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날은 국내외 수소산업 동향 등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서 부시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김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방향성을 보다 구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김제형 수소에너지를 육성하는 것은 김제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인 만큼, 본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교육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달 28일 부안군 치매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 회복력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노년층의 이해 △우울, 스트레스 검사 △감정에 대한 이해 △스트레스·우울 관리 및 자기 돌봄(Self-care) 전략 △내 마음의 처방전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심리방역 실천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치매 환자 돌봄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정신건강 지지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심리적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실질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울·스트레스 상담 및 자살예방 교육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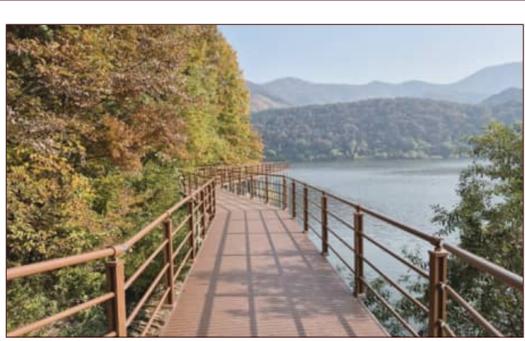
남원시, 모노레일 대법 기각 내일 입장 밝혀

408억 대위변제 쟁점...시 "아쉬움" 통합안정화기금 505억 상환 검토 시의회 협의 거쳐 재정 부담 최소화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 사이의 '모노레일 실시협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됐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대 대법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매우 아쉬움을 전하며, 3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시의 입장과 함께 각종 후속 대책 등 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상환방식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 505억을 조속히 상환하는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

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간개발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긴 시간 지속된 소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키운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시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시 재정적 피해를 보전하는 데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구이저수지 9.3km 둘레길 상반기 완공

수상덕 연결로 끊긴 동선 이어 안전편의 보강 관광 연계 추진

완주군이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수변 산책 명소를 선보인다. 둘레길은 총연장 9.3km 규모로, 기존 구간과 신규 구간을 단계적으로 연결한다. 군은 빼어난 수변 경관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담아내 주민에게는 일상 속 힐링과 여가를, 방문객에게는 완주의 새로운 관광 매력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 구간인 호수마을-원항가마마을을 잇는 수상 데크(deck) 길 조성이 완료되면, 그동안 구간별로 끊겨 있던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이에 따라 구이저수지 전 구간을 막힘없이 걷는 순환형 보행 환경이 갖춰져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둘레길 완공에 맞춰 안전·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연 속 걷기와 힐링을 찾는 관광 수요에 발맞춰,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완주의 대표 수변 관광 자원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주민의 여가 공간을 넓히는 것은 물론, 완주의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힐링 코스가 될 것"이라며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올해 상반기 안에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 환경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상광 고속도로 교량 하부 유휴부지 활용 협약 체결

완주군이 고속도로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주민을 위한 생활 공간으로 바꾼다. 지난달 30일 완주군은 한국도로공사, 상관면 계민마을과 주민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김수용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개발사업단 부장을 비롯해 상관면과 계민마을을 대표해 국해수 상관면장과 김수영 계민마을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상관면 의암1교 하부 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해 여가·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배드민턴 코트, 그늘막, 가로등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며, 설계·시공 및 안전관리를 맡는다. 해당 시설은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는 완주군으로 이관돼 운영된다. 시설 운영과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계민마을 주민이 중심이 돼 수행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위 1차 회의...준비 본격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제21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축제 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 등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지난해 열린 제20회 축제는 3일간 약 1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관광객 만족도 5점 만점에 4.10점을 기록했다. 지역경제에 약 3,597억 원의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순창장류축제는 2026년 도시·군 대표 축제 육성사업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제21회 순창장류축제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제21회 축제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총 13억 3,500만 원 규모 예산으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문화공연, 전시·판매, 공식행사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류 고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K-발효문화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통 장류문화와 현대 식문화 콘텐츠를 융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 중점개신 및 검토사항으로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상생형 축제 운영, 지역 문화예술단체 참여 확대,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강화, 친환경·안전 중심 축제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구직 청년 면접 정장 대여 '부담 덜기'

군 거주·취업희망 18~45세 청년 3박4일 대여 1인 최대 2회 지원

완주군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면접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장 구입 비용 부담을 완화해 청년이 보다 자신 있게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운영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구직 과정에서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었거나 완주군 내 취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선정 대상자는 면접에 필요한 정장 상하의, 셔츠·블라우스, 구두, 넥타이, 벨트 등 면접 필수 품목을 대여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메카완주(youth.wanju.go.kr)'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승인 후 지정된 정장 대여업체를 방문해 대여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1회당 3박 4일이며, 1인당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구직 과정에서

반복되는 면접 준비 비용이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지원이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청년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1월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데 이어 2026~2030년 청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과 성장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연 15만원 지급

기초수급·차상위 6세 이상 파우치 청소년·준고령기 1만원 추가 지원

남원시가 2026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 12. 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도서·공연·영화·여행·스포츠 등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며, 청소년(2008~2013년생)과 준고령기(1962~1966년생) 대상자에게는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강화를 위해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카드 발급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자격을 유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1일 자동 재충전을 완료했다. 자동 재충전 대상이 아닌 이용자와 신규 발급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는 만큼, 시민들이 사용하기 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인상과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으로 더 많은 시민이 문화복지 혜택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급률과 이용률을 높여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부족으로 신청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남원시는 2026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확대하며 카드는 오늘부터 발급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및 고객센터(1544-3412)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취약지 구급차 비용 일부 지원 최대 15만원 연 5회까지

순창군은 응급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

(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간 5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순창군보건 의료지원과(주소: 순창읍 063-650-5321)에 문의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담양군 파크골프협회 '스포츠 상생' 자매결연

자매결연·첫 교류전 성료 연 3회 정기 교류전 개최 합의

순창군과 담양군이 파크골프를 매개로 양 지자체 간의 우호를 다지고 상생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삼진강 파크골프장에서 양 군 파크골프협회의 자매결연식과 함께 첫 교류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순창군 파크골프협회(회장 임춘기) 회원 40명과 담양군 파크골프협회(회장 유영재) 회원 40명 등 총 80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오전에 삼진강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 교류전으로 시작됐으며, 양 군 동호인들은 각 조에 섞여 편성되어 실력을 겨루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 후 물물교환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공식 자매결연식에서는 양 협회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양 군의 교류를 축하하고 동호인들을 격려했으며, 이어진 오



순창군은 지난 1월 30일 삼진강 파크골프장에서 양 군 파크골프협회의 자매결연식과 함께 첫 교류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찬에서는 양 지역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양 협회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매년 1월과 5월, 11월 등 연 3회에 걸쳐 정기적인 교류전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순창군은 18개 클럽 700여 명, 담양군은 8개 클럽 5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자매결연이 인접 지자체 간 체육 네트워크 구축

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늘 이 자리는 순창군과 담양군 파크골프협회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면서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의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농기계 '반값 임대' 1년 연장...농가 부담 완화

12월 말까지 50% 감면 기간 확대 4개 권역 임대사업소서 신청 없이

완주군이 물가상승 및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당초 2025년 12월 말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임대료 감면은 고산·삼례·구이·소양 4개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관내

농업인이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경우 1인 1대 기준 최대 2일까지 임대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감면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시민공감 소통한마당' 현장행정 강화

도통동 침수구역 단계 정비 추진

남원시는 '2026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을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달 22일 산동면을 시작으로 관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산동면부터 도통동까지 이어진 소통한마당 현장에서는 △노로 및 마을 침수구역 해소, △노후 수문시설 교체 등 주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건의사항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도통동 고죽동 일원에서는 상습 침수로 농경지와 농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올해 하류 일부 구간을 우선 정비하고 잔여 구간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스마트 경로당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소통을 병행하고, 원격으로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설명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수어통역을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현재 접수된 건의사항 중 안전과 직결되거나 시급한 사안은 우선 검토를 거쳐 오는 3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시민공감 소통한마당' 현장행정 강화

남원시, 바래봉 눈꽃축제장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장에서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담긴 리플릿 배부와 함께 아동학대의 주요 신고방법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는 202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 권리 증진과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아동의 참여권, 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부모교육을 계획해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TCI 검사 및 양육코칭 프로그램 △다문화 부모 교육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립도서관, 초등학생 대상 겨울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 프로그램 '어린이 환경 챌린지, 새학기 텃밭 만들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제도서 '비닐봉지 나가기'와 연계한 친환경 공예 체험으로,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방학 기간 중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겨울 독서교실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임실군립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총 2회 진행되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 어린이들은 환경 주제도서를 함께 읽고, 폐섬유를 재활용한 양말뚝 공예 체험을 통해 새학기 텃밭 만들기 가방을 만들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도서관에 전화로 문의(063-640-3041)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농협 및 소속 단체, 장수군에 장학금 300만원 기탁

장수군은 장수농협등동조합과 소속 단체들이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재)장수군에향교교육진흥재단에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장수농협등동조합(조합장 김용준), 전국협동조합업종본부, 장수농협지회(지회장 장현우), 장수농협 고향주부모임(회장 정은숙)이 지역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장학금은 장수군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수농협과 관련 단체는 평소에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농업의 역할을 실천하며, 교육·복지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 기탁 역시 지역 인재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 설천면 이장 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설천면 이장 협의회(회장 백현기, 하평 이장)가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백만 원을 지난달 30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했다.

백현기 회장은 "이장님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나눔과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천면 이장 협의회는 25개 마을 이장들이 마을 간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도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부해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4위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 분석 결과 발표

무주군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 분석' 결과, 주민 수 대비 평균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 지방정부 중 4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주군의 2025년 12월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누적액은 13억 8천8백만 원이며 1인당 평균 모금액은 6만 932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대비 93% 이상 증가한 수치로, 무주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확산과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답례품 확대 등 활성화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어르신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 △무주 연극 동아리 활성화 지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차량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정 기부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선옥 무주군청 자치행정과장은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이번 성과는 무주를 아끼고 응원해 준



무주군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 분석 결과 주민수 대비 평균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 지방정부 중 4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기부자들의 정성이 쌓은 금자탑"이라며 "강소(強小) 도시 무주의 지력을 입증한 만큼 내실 있는 기부금 사업 추진을 통해 무주에 기부한 보람을 안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으로,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추진해 지역 인재 육성과 문화 복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기부자가 직접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부' 방식은 호응을 얻으며 모금 개시 3주 만에 목표액 대비 159%인 3천5백만 원을 달성, 조기 마감됐던 '어르신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도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취약계층 명절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차상위수급자 중 장애인 전체 한부모 가족까지 대상 확대

임실군이 민선 7기부터 8년째 꾸준히 추진한 취약계층 명절지원금 대상을 올해는 더욱 확대, 추진한다.

군은 심 민 군수가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설과 추석명절에 취약계층에게 지원한 명절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만원에서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해 왔다. 올해 설 명절부터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는데, 이번 확대 조치는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 확대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차상위수급자 가운데 만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한정했지만, 개정 조례를 통해 차상위수급자 전체 장애인과 한부모가족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명절에는 940가구 1,07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설 명절에는 대상 확대에 따라 130가구, 280여명이 증가한 1,070가구, 1,35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가구는 15만원, 2인가구는 2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지난해 추석에는 940가구에 1억 4천 6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으며,

이번 설에는 총 1억 9천 3백만원 규모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복지채증도를 높이는 동시에, 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도 함께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은 2월 5일부터 12개 읍·면사무소 방문접수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가정방문 전달방식도 병행해 설 명절 이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군은 명절 상품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돕고 소외없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의미를 두고 고령자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설 명절 대비 상수도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연휴 기간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장수군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관내 상수도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 고장과 단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배수지와 가압장, 송·배수관로 등 주요 상수도시설 전반이며, 시설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설 동파와 설비 이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구조물 상태와 기계·전기 설비 작동 여부, 비상 전원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휴 이전까지 신속히 정비해 상수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상수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상수도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 군수는 "불편 없이 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2026년 과수 경쟁력 강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농업 맞춤형 지원 확대

무주군이 '2026년 과수 분야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과수 분야 지원은 기후변화와 수입 과일 소비 확대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과수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수입 과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고 있다.

무주군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총사업비 12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오래된 과원 구조를 개선하고 고품질 과일 생산에 최적화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 목소리를 반영해 인건비

와 묘목 등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품종갱신을 비롯한 관수·관비 시설, 방풍망, 방상팬 등 생산 기반 시설 지원에 집중한다.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 과수원을 정보통신기술 장비, 무인화시설, 재해 예방시설이 집적된 스마트 과수원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계화, 무인화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농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현대화 및 집산화된 과실 생산 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사업 1년 차인 올해는 8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다충형 수형 전환과 국내 육

성 품종 전환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과수 저온피해 예방제 지원,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 지원사업 등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보급 사업으로 전환해 예산을 편성했다.

냉해와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무주군은 '과수 저온 피해 예방제 지원사업'에 8천만 원, '사과 해충 친환경 방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무주 사과'를 비롯한 복숭아, 포도 등 지역 특화 작목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2026 겨울방학 입시특강 개최

입시특강 및 1:1 컨설팅 진행 지역맞춤형 대입로드맵 제시

진안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6 겨울방학 입시특강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대입제도의 변화 속에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관내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역인재전형' 등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월 24일 오후 6시에는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입시 트렌드 및 맞춤형 로드맵' 특강이 열린다. 학습코칭 전문가이자 입시 컨

설턴트인 이지나 강사가 나서 대학 입시제도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관내 학생들을 위한 필수 전략을 전수할 예정이다.

해당 특강은 별도의 제한 없이 관내 학생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1:1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도 진행된다. 중학생에게는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을, 고등학생에게는 구체적인 대입 전략 및 영역별 공부법을 제시한다.

컨설팅은 오는 2월 13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진안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학교 재학생, 관내 소재 회사 재직자 자녀라면 신청 가능하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시행

고령층 중증폐렴 예방

장수군은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시행한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고령층에서 폐렴은 물론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중증 감염증 발생과 폐렴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며, 1회 접종만으로도 장기간 면역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필수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기관과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료 접종은 평생 1회만 제공되며, 과거 접종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은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 안내와 함께 위탁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읍·면 이장회의 및 마을 계사관 홍보 등을 병행해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최희순 군수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조기에 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 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진안군은 뱀다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번기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원 내용은 농경지 주변에 농경 울타리, 전기(태양광) 울타리, 그물망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이다. 군

은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농가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전·답·과수원 등 합법적인 농지에서 실제 경작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 폐회 군정주요 현안대안제시 집중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가 지난달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27일부터 3일간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했다.

동창욱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

시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군정 전반의 방향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보고된 사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점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화목보일러 가용 가구 안전 관리 강화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백운암 광진 스님, 취약계층 위해 백미 150포 기탁

임실군 운암면 신기마을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백운암의 광진 스님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백미 150포(10kg)를 기부했다.

광진 스님은 백운암으로 부임 이후 매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백미를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광진 스님은 "운암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년 백미 기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된 백미는 운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운암면 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운암면(면장 최진욱)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광진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만큼 후원이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운암면의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군 운주면 손준성 씨, 50만 원·꽃감 25팩 기탁

완주군 운주면 용계원마을에 거주하는 손준성 씨가 지난달 29일 운주면에 현금 50만 원과 꽃감 25팩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졌다. 기탁된 성금은 지정 기탁으로 운주면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꽃감은 복지 대상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손준성 씨는 "지역에서 농사지는 특산품과 함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홍성희 운주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손준성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과 물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 공직자 3명, 장학금 300만원 기탁

지역 교육발전에 힘 보태

장수군은 서기관으로 승진한 황현철 농산업건설국장, 박문철 장수읍장, 배중수 전 행정지원과장이 장학금 300만원을 (재)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장학금은 장수군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비롯해 급변하는 교육 여건에 능동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에 참여한 승진자들은 "장수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학생들"이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 인재 육성에 동참한 사례로, 지역사회 전반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은 서기관으로 승진한 황현철 농산업건설국장, 박문철 장수읍장, 배중수 전 행정지원과장이 장학금 300만원을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삼례읍변영회 공로패 수상

삼례읍 다목적종합센터 건립 기여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삼례읍 다목적종합센터 건립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삼례읍변영회(회장 윤정원)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삼례읍 다목적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정책적 역할을 통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시행이 확정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

았다.

특히 주민 요구를 군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삼례읍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윤정원 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삼례읍 주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울림이엔티, 군산시에 성금 500만원 기탁

(주)울림이엔티(대표이사 김재아·여성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군산시에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여한 김재아, 여성구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주)울림이엔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김제시에 수정과 기탁

김제시는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엽)이 지난달 29일 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수정과 100박스 총 200만 원 상당이며, 도움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태엽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산 인삼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물품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 행안면 군민과의 대화서 고향사랑기부 이어져

부안군은 지난달 28일 행안면에서 열린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가 이어지며 행사가 의미 있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부잔디 대표 김상신 씨가 200만 원을 기탁했으며, 김홍우 행안면 주민자치위원장, 김명옥 행안면 주민자치위원, 김명순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여성회장이 각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군민과 행정이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희망소통대화 현장에서 이뤄져,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부안군은 이번 기탁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기부금은 향후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무장면 이장단협의회, '이장수당' 모아 정기 나눔 실천

고창군 무장면 이장단협의회(협의회장 박일수)가 소속 이장 40명 전원이 매월 이장수당의 일부를 모아 월 20만원씩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무장 이장들은 지난해부터 매월 이장수당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적립해 기부금을 마련하고, 무장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왔다.

박일수 협의회장은 "주민들로부터 받은 신뢰와 역할에 보답하고자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나누기로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필규 무장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이장단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겨울철 안전한 운전을 위한 준비과정?

자동차 에얼

차량 탑승하여 시동 켜고 20~30초 에얼하기

엔진온도 올라가기전 급제동 급가속 하지않기

성에(습기) 제

차량 REAR, FRONT 버튼 활용한 성에 제거

A/C 버튼으로 히터작동 시 과도한 습기 예방

타이어 관리

겨울철 타이어 공기압 적정 수치

승용차 - 30~33psi

RV- 35~40psi

운전습관

급정거를 피하고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사용

빙판길, 내리막길은 엔진 브레이크 사용

〈一事一言〉



정책 실패의 책임은 왜 늘 시민 몫인가

김관춘
주필

전·현직 단체장 간의 갈등과 정책 뒤집기가 결국 시민의 삶과 지역 재정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또다시 반복됐다.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약 5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 착오를 넘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과 책임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뼈아픈 경고다.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연속성 상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선거 결과에 따라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다. 행정은 연속성을 전제로 신뢰를 쌓아야 하고, 민간과의 약속 역시 법과 원칙 위에서 존중돼야 한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부적절한 협약'과 '과다한 사업비'를 이유로 기존 협약을 무효화하며 사 용·수익 허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행정 지연으로 판단했고, 그 책임을 명확히 남원시에 물었다. 그 결과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왔다.

500억 원은 남원시 한 해 예산의 5%를 넘는 큰 금액이다. 복지, 교육, 안전, 지역경제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 소송 비용과 배상금으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해당 시설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는커녕, 가동 이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정책 실패의 대가는 단지 숫자로 끝나지 않고, 도시의 신뢰와 미래 가능성까지 잠식한다.

이번 사태는 특정 단체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무리한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 예측, 졸속 협약 체결, 그리고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정책을 뒤엎는 결정까지, 전·현직 행정 모두가 자유 원칙과 책임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뼈아픈 경고다.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연속성 상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선거 결과에 따라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다. 행정은 연속성을 전제로 신뢰를 쌓아야 하고, 민간과의 약속 역시 법과 원칙 위에서 존중돼야 한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부적절한 협약'과 '과다한 사업비'를 이유로 기존 협약을 무효화하며 사 용·수익 허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행정 지연으로 판단했고, 그 책임을 명확히 남원시에 물었다. 그 결과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왔다.

500억 원은 남원시 한 해 예산의 5%를 넘는 큰 금액이다. 복지, 교육, 안전, 지역경제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 소송 비용과 배상금으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해당 시설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는커녕, 가동 이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정책 실패의 대가는 단지 숫자로 끝나지 않고, 도시의 신뢰와 미래 가능성까지 잠식한다.

이번 사태는 특정 단체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무리한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 예측, 졸속 협약 체결, 그리고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정책을 뒤엎는 결정까지, 전·현직 행정 모두가 자유 원칙과 책임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뼈아픈 경고다.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연속성 상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선거 결과에 따라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다. 행정은 연속성을 전제로 신뢰를 쌓아야 하고, 민간과의 약속 역시 법과 원칙 위에서 존중돼야 한다.

500억 원은 남원시 한 해 예산의 5%를 넘는 큰 금액이다. 복지, 교육, 안전, 지역경제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 소송 비용과 배상금으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해당 시설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는커녕, 가동 이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정책 실패의 대가는 단지 숫자로 끝나지 않고, 도시의 신뢰와 미래 가능성까지 잠식한다.

이번 사태는 특정 단체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무리한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 예측, 졸속 협약 체결, 그리고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정책을 뒤엎는 결정까지, 전·현직 행정 모두가 자유 원칙과 책임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뼈아픈 경고다.

문제의 핵심은 정책의 연속성 상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선거 결과에 따라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다. 행정은 연속성을 전제로 신뢰를 쌓아야 하고, 민간과의 약속 역시 법과 원칙 위에서 존중돼야 한다.

500억 원은 남원시 한 해 예산의 5%를 넘는 큰 금액이다. 복지, 교육, 안전, 지역경제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 소송 비용과 배상금으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해당 시설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는커녕, 가동 이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

사설

설 명절 먹거리 안전, 철저한 점검이 신뢰 쌓는다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정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만큼 명절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안전 문제다. 전북자치도가 설명절을 앞두고 식품안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도와 14개 시·군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식품안전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고도 당연한 조치였다.

무엇보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점검은 한과와 떡, 수산물 등 명절 다소비 식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해 총 2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 실적이 없었던 업소를 중심으로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자가품질검사 기록,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는 것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농·수산물과 가공·조리식품 등 50건을 수거해 보존료와 세균수, 중금속, 타르색소까지 정밀 검사한 것이 역시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검증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업소에서 단기간 이익을 노린 부실 관리나 편법 영입이 반복돼 온 것도 사실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이나 위생 관리 소홀은 작은 부주의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장 계도에 그치지 말고 재발 방지 대

책까지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의 점검만으로 식품 안전이 완성될 수는 없다. 영업자 스스로가 '명절 특수'라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평소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위생과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과장된 표시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성숙한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점검이 현장 단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단 점검은 끝났어도 업소에 대한 사후 재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명절 기간에만 반짝 강화되는 관리가 아니라 연중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군 간 정보 공유와 점검 결과의 투명한 공개도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은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활성화해 현장의 시각자료를 줄여야 한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감시원의 역할은 대규모 행정 점검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안전한 먹거리가 곧 지역의 신뢰와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 명절 풍경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해질 것이다.

전북자치도의 이번 설명절 식품안전 집중 점검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점검 과정 하나하나에 허점이 없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심하고 음식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명절, 그것이야말로 행정이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자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화재 열전



익산향교대성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향교
-지정일 - 1985년 8월 16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389-1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제민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레스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입춘(立春) / 이해인

꽃술이 떨리는 매화의 향기 속에, 어서 일어나세요, 봄. 들새들이 아직은 조심스레	지저귀는 나의 정원에도, 비람 속에 살짝 웃음을 키우는 나의 마음에도, 어서 들어오세요, 봄.	살아있는 것들 다시 사랑하라 외치며 즐겁게 달려주세요, 봄.
---	--	---

시인 약력 : 1945년 강원도 양구 출생의 수녀 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에 입회했다. 1976년에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를 발간했다. 1997년 '해인글방'을 열고 문선교회를 시작했다. '내'에 불을 놓아 '시간의 얼굴' 등 시집과 산문집 '두레박' '꽃산' '사랑할 땐 별이 되고'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전북의 소식은 전북타임스와 함께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구독신청 282-9603 기사제보 282-9600

2026년 김제시, 일비충천 一飛冲天 기세로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한다

김제시는 지난해 탄핵정국과 국제 경제 질서 재편, 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절대로 낭비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거센 위기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김제의 새로운 미래 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눈부신 수치가 김제의 저력을 증명한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는 2026년까지 시 최초 4년 연속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인구 또한 2024년 대비 1,041명이 증가해 민선 최초 인구 증가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입지 강화와 경제 기반 다지기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잇따랐다.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남북2축도로에 이어 만경 6공구 방수제 등 새만금 핵심 지역의 김제 관할 결정이라는 쾌거를 거뒀으며, 김제상공회의소 개소와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통령상 수상 등 유례 없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동력 삼아 김제의 미래를 완성해 나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김제시는 시장 슬로건을 ‘지평선 너머 새만금 가시, 비상하는 김제’로 정하고, 2026년 혼신의 역량을 이어 나갈 ‘대역점 시책’을 제시하며 힘찬 비상을 시작하고 있다.

(편집자주)

역점시책 1

기업과 시민이 함께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도시’
김제시는 2026년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선 챙기는 민생경제 회복의 해로 정하고, 시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 아래,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기업 수요와 구직자 역량을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년의 상상이 김제에서 현실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도시 기반을 다진다.

김제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형 활성화,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와 연계를 통해 골목상권까지 경제회복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완수해 나갈 예정이다.

역점시책 2

오늘의 도전으로 내일을 여는 ‘신산업육성도시’
김제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국가전략에 발맞춰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단순한 산업 유지가 아닌, 김제의 여건과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이에 따라 필드로봇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고소작업 건설로봇 플랫폼 및 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 개발 등 누구보다 앞서 추진해 농업·건설·모빌리티 등 다양한 현장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주력 산업인 특장차 분야에는 AI와 수소 기술을 결합해 전국 유일의 특장차 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우분 기반 청정수소 생산, 방위산업 연계 전략 등 차별화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전북 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김제를 신성장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역점시책 3

첨단으로 일구는 농생명의 새로운 지평 ‘스마트 농업도시’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를 향한 김제의 도전은 2026년에도 멈추지 않는다.

김제시는 스마트농업 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생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려 포부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과 새만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차질 없이 조성해 첨단농업의 실증·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K-종자산업을 세계 무대로 싹 틔우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제일의 논농 생산지라는 강점을 살려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체험까지 연계한 국산 농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기후변화 농업생태체관 조성과 신품종 보급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치유농업과 복지분야·의료분야를 연결한 치유농업 융합허브 조성을 통해 농업 속에서 힐링을 찾고, 농촌에서 삶의 여유를 회복하는 김제형 농생명 모델을 본격화할 구상이다.

역점시책 4

미래의 물결이 이끄는 기회의 땅 새만금, ‘해양항만도시’

새만금은 시민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답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약속이라는 신념 아래 새만금을 미래 100년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해양항만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적극 대응하고, 신항만 방파제 등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새만금 2호 방조제 CCTV 설치, 관광안내관 정비 등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후속 행정조치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거점 및 SOC 기반 구축을 위해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조성,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국립 해양도시과학관 조성 등 새만금의 내일을 만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며,

2026년 새만금 신항 주기 개항에 대비해 그린 에너지·콜드체인 융복합 허브·크루즈 거점 조성 등 미래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역점시책 5

365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케어도시’

김제시는 시민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에 힘을 쏟는다.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재난대응 안전한 국현련, 읍지연습 등 훈련도 실질처럼 실시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의곡지구·오정지구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급경사지 정비를 통해 재해에 강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시민이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역점시책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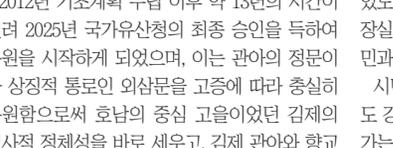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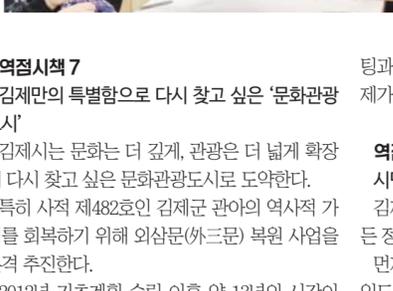
모두가 더불어, 충충하게 누리는 ‘교육복지도시’

김제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시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전 생애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을 통해 김제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은 물론 로컬 공방형 배움터를 비롯한 평생학습 확대로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도시 구현에 앞장선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2024년 문을 연 천사무원급식소의 운영도 한층 더 내실있게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 효행 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50만 원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어르신 섬김 정책도 세심하게 펼칠 예정이다.

장애인·저소득층 자립 지원과 다문화·외국인 주민 지원 등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복지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부터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
민선 최초 2024년 대비 1,041명 인구 증가
동서도로·스마트 수변도시·만경 6공구 방수제 등
새만금 핵심 지역의 김제 관할 결정 쾌거 거뒀**

일원을 연계해 도심 속 역사 문화 벨트를 구축하는 데 시장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축제의 품격도 한층 높아진다. 지평선 축제, 꽃빛드림축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국가유산 야행, 새로보미 축제와 더불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작은 축제를 새롭게 육성해 계절이 축제로 물드는 세계축제도시로 도약하며, 스포츠 마케팅과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문화와 관광,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역점시책 7

김제만의 특별함으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김제시는 문화는 더 깊게, 관광은 더 넓게 확장해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한다.

특히 사적 제482호인 김제군 관아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외삼문(外三門)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12년 기초계획 수립 이후 약 13년의 시간이 걸려 2025년 국가유산청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복원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는 관아의 정문이자 상징적 통로인 외삼문을 고증에 따라 충실히 복원함으로써 호남의 중심 고을이었던 김제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김제 관아와 향교

까지 정책에 담아내고, 읍지 정착농민 잔여축사를 매입과 생태복원,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폐지 등 시민의 오랜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시책과 철저한 공약 이행 점검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가시화하며, 시는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시장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임기 내 공약 사항을 차질 없이 매듭짓는 책임 행정을 끝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금의 김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시민의 목소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다”면서 “어떠한 도전과 난관 앞에서도 초지일관 흔들림 없는 시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하루하루 정성과 열정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어서 “단번에 날아올라 하늘 높은 곳까지 이르는 일비충천(一飛冲天)의 자세로 지평선처럼 넓게 보고 새만금처럼 담대하게 비상하겠다”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응징하는 김제를 위해 필요한 일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은봉기 기자